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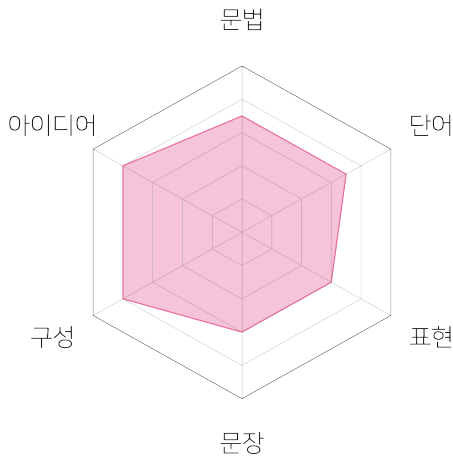


종합 평가

85.7 점

문장 구성이 풍부하고 다양한 단어를 잘 활용하여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의견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표현하였으며, 인권에 관하여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 예절 교육 등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표 분석



[문법]	B+
[단어]	B+
[표현]	B
[문장]	B
[구성]	A
[아이디어]	A

[문법]

문법에 맞는 글을 쓰는 방법을 알고 있지만, 종종 글에 문법적 오류가 보이니 글쓰기 연습을 꾸준히 하는 습관이 필요해요.

[단어]

어휘를 다양하게 사용하여 앞으로 더욱 풍부한 글을 쓸 수 있도록 꾸준히 학습해 보세요.

[표현]

접속 표지를 활용하여 글을 매끄럽게 연결하고 독자에게 내 의사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어요.

[문장]

문장의 형태와 구조를 다양하게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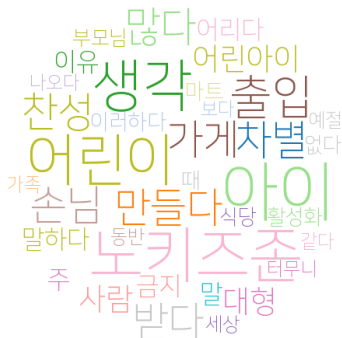
[구성]

글의 장르에 맞게 논리적인 순서로 구성하는 능력이 우수해요.

[아이디어]

하나의 주제에 대해 세부 내용을 이용하여 구체적인 글을 작성하는 능력이 뛰어나요.

통계 분석



전체 글자 수	1066 자
전체 문장 수	20 개
전체 문단 수	4 개
단어의 평균 길이	3.6 자
분석 오류 문장 수	0 개
글 흐름의 자연스러움	62.4 %

■ 화제 제시
 ■ 주장
 ■ 근거
 ■ 예시
 ■ 주장 반박
 ■ 반박 재반박
 ■ 결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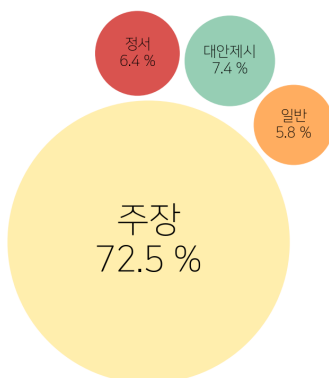
어린이를 받지 않겠다는 가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른바 '노키즈존'인데요, 주로 커피전문점이나 음식점 등입니다. 노키즈존은 말 그대로 어린이는 들어오면 안 되는 구역을 말합니다. 어린 아이들이 만드는 소음이 다른 손님들을 불쾌하게 만들고, 가게를 지저분하게 만들고 가는 경우가 많다는 이유였습니다. '노키즈존'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목소리가 첨예하게 대립 중입니다.

저는 노키즈존은 또 하나의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들어갈 수 있던 장소인데, 어린아이라는 이유로 갑자기 출입이 금지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차별이 괜찮다는 생각들이 많아지면 노키즈존은 더욱 확대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어렸을 때 대형마트에서 부모님과 장난감을 골랐던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노키즈존이 더욱 활성화 된다면 현재의, 그리고 미래의 어린아이들은 이런 사소한 작은 추억조차 얻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2017년 11월 식당의 노키즈존 방침이 어린이를 차별하는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노키즈존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노키즈존은 어린이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라는 터무니 없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대형 마트나, 뜨거운 음식이 나오는 식당에서 아이들이 움직이다가 다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아이들을 좋아하지 않는 손님과 아이를 동반한 가족 간의 마찰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논리라면 어린이는 세상 밖으로 나오지 말란 말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출입을 금지할 것이 아니라, 공공장소의 예절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의 부모님은 책임지고 아이들이 가게나 손님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게 해야 합니다.

저는 노키즈존을 찬성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인종차별과 다르게 무엇인지, 아이들은 안되고 강아지와 같은 애완동물의 출입은 왜 금하지 않는지, 출입을 거부당한 아이가 받을 상처를 자신의 자녀가 받는다는 생각을 해 보았는지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모두는 어린이였습니다. 어른들이 불편하다는 이기심으로 어린아이를 꺼려하는 '노키즈존', 부모의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글 검색



문장과 문단의 성격을 분석하여 '성분 분석 버블차트'를 제시합니다.

'주장/설명/찬성반대/대안제시/정서/일반진술'의 6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쓴 글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습니다.

주장 : 자기의 의견을 내세운 표현과 문장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대안제시 :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정서 : 개인적인 감정이 드러난 문장을 사용했습니다.

일반 : 주로 글짓기에서 정서 표현을 제외한 글을 의미합니다.

※ 주장에서 "나열" 분류에 해당하는 접속 표현을, 다른 사람보다 자주 사용하는 편입니다.

도움말 접속표지를 과도하게 사용하면 부자연스럽게 이어진 글이라는 평가를 받기 쉽습니다. 접속표지 없이도 잘 이어지는 문장 사이에서는 접속표현을 생략하는 것이 좋습니다.

※ 노키즈존, 차별

도움말 이 글의 주제로 선정한 단어들이입니다.

좋아요 '주장글'에 알맞은 문단 길이를 가진 글입니다. 주장에 대한 근거를 담기에 충분한 분량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좋아요 문단에 적절한 문장 수를 사용했습니다. 앞으로도 적절한 길이의 문단을 활용하세요!

좋아요 주제와 관련 있는 단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주제를 잘 나타내었습니다.

🔍 문단 첨삭

1 문단

어린이를 받지 않겠다는 가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른바 '노키즈존'인데요, 주로 커피전문점이나 음식점 등입니다. 노키즈존은 말 그대로 어린이는 들어오면 안 되는 구역을 말합니다. ⁽¹⁾어린 아이들이 만드는 소음이 다른 손님들을 불쾌하게 만들고, 가게를 지저분하게 만들고 가는 경우가 많다는 이유였습니다. '노키즈존'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목소리가 첨예하게 대립 중입니다.

(1) 어린 아이들이
→ **어린아이들이**

도움말 '나이가 적은 아이'를 뜻하는 말 그 자체를 하나의 명사로 쓸 때는 붙여 씁니다. 단, '어리다'를 관형사형으로 써서 뒤에 오는 체언을 꾸미는 형태라면, '나이가 어린 아이'처럼 띄어 씁니다.

포인트 글의 첫머리에 '나의 주장'을 제시하는 것은 독자에게 이정표를 주는 것과 같습니다. 목적지가 분명한 글은 독자가 글쓴이의 의도를 미리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글을 읽는 이해도가 높아집니다.

고쳐요 "커피 전문점이나 음식점 등입니다." 문장 연결이 매끄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주로 카페나 음식점에서 어린이를 받지 않겠다는 가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장 순서를 바꿔서 연결해 보세요.

코멘트 "가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보다는 구체적으로 얼마나 늘어났는지 조사 결과를 인용해 보세요. 막연하게 많다는 것보다 구체적인 수치를 적어주면 문제점이 더 부각되어 보입니다.

2 문단

저는 노키즈존은 또 하나의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들어갈 수 있던 장소인데, 어린아이라는 이유로 갑자기 출입이 금지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차별이 괜찮다는 생각들이 많아지면 노키즈존은 더욱 확대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²⁾대부분의 학생들은 어렸을 때 대형마트에서 부모님과 장난감을 골랐던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노키즈존이 더욱 ⁽³⁾활성화 된다면 ⁽⁴⁾현재의, 그리고 미래의 어린아이들은 이런 사소한 작은 추억조차 얻을 수 ⁽⁵⁾없게되는 것입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2017년 11월 식당의 노키즈존 방침이 어린이를 차별하는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2) 대부분의 학생들은

→ 대부분의 학생은

도움말 최근 우리말에 접미사 '들'을 원칙이 없이 사용하는 예가 매우 흔합니다. 우리말에는 '들'이 붙으면 복수의 의미보다는 빈정거림의 뜻으로 쓰이는 예가 많으므로 '들'의 사용을 자제하심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여러', '양국', '각'은 자체가 복수이므로 접미사 '-들'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3) 활성화 된다면

→ 활성화된다면

도움말 '활성화되다'는 붙여 씁니다.

(4) 현재의

→ 현재의

도움말 '이제', '지금'의 뜻은 '현재'입니다.

(5) 없게되는

→ 없게 되는

도움말 어미 다음에 오는 말은 띄어 써야 합니다.

※ 문단에서 사용된 접속표지는 또, 그리고, 하지만, 또한 입니다.

도움말 접속 표현을 너무 많이 사용하면, 억지스러운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흐름에 맞는 글을 작성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 또, 그리고

도움말 이 문단에서는 같은 종류의 접속표현을 연속해서 사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종류의 접속표현은 연속해서 사용하지 않는 것을 권장합니다. 접속표현이 없어도 문장이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쳐요

대형마트를 언급하는 부분이 자연스럽게 않습니다. 첫 문단에서 노키즈존은 주로 카페와 음식점에서 시행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고, 노키즈존이 확대된다고 마트까지 출입하지 못할 것이란 생각은 비약적으로 보입니다.

고쳐요

노키즈존이 확대되면 생기는 문제점을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 판결 부분은 흐름상 생략해 주세요.

코멘트

'추억'이라는 추상적이고 감성적인 내용보다는 노키즈존이 확대되면 어떤 문제점이 생길지 고려해 좀 더 객관적인 내용으로 바꾸면 좋겠습니다.

3 문단

노키즈존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노키즈존은 어린이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라는 (6)터무니 없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대형 마트나, 뜨거운 음식이 나오는 식당에서 아이들이 움직이다가 다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이들을 좋아하지 않는 손님과 아이를 동반한 가족 간의 마찰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논리라면 어린이는 세상 밖으로 나오지 말란 말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출입을 금지할 것이 아니라, 공공장소의 예절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의 부모님은 책임지고 아이들이 가게나 손님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게 해야 합니다.

(6) 터무니 없는

→ 터무니없는

도움말 '없다'는 형용사로 띄어 씀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어이없다, 쓸데없다, 아낌없다, 느닷없다처럼 순우리말과 결합하는 경우 복합어로 보아 붙여 씁니다. 터무니없다 역시도 한 단어이므로 붙여 써야 바릅니다.

코멘트

"터무니없는", "어린이는 세상 밖으로 나오지 말란" 이런 표현은 감정적으로 보입니다. 논설문은 객관적으로 적어야 하는 글이므로 최대한 감정을 빼고 차분하게 적어 보세요.

4 문단

저는 노키즈존을 찬성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인종차별과 (7)다르게 무엇인지, 아이들은 안되고 강아지와 같은 애완동물의 출입은 왜 금하지 않는지, 출입을 거부당한 아이가 받을 상처를 자신의 자녀가 받는다는 생각은 해 보았는지를 (8)물어보고 싶습니다. 모두는 어린이였습니다 (9).어른들이 불편하다는 이기심으로 어린아이를 (10)꺼려하는 '노키즈존', 부모의 입장에서 (11)한번 더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7) 다르게
→ 다를 게

도움말 '것이'를 줄여 '게'로 쓸 때는, '것'이 의존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써야 합니다.

(8) 물어보고 싶습니다
→ 물어보고 싶습니다

도움말 보조용언과 본용언은 띄어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본용언이 단일어이거나, 복합어이지만 그 활용형이 2음절을 넘지 않을 때, 본용언이 보조 용언과 '-아/-어/-여'로 이어져 있으면 본용언과 보조 용언을 붙여 쓰는 것이 허용됩니다. 그러므로 싶습니다를 띄어 써야 합니다.

(9) .어른들이
→ . 어른들이

도움말 우리말에서 온점(.)은 앞에 오는 말에는 붙여 쓰지만, 뒤에 오는 말과는 띄어 써야 합니다.

(10) 꺼려하는
→ 꺼리는

도움말 '해가 돌아올까 하여 피하거나 싫어하다'를 이르는 말은 '꺼리다'가 맞습니다. (예) 꺼려하다 (X) -> 꺼리다 (O)

(11) 한번 더
→ 한 번 더

도움말 번'이 차례나 일의 횟수를 나타낼 때는 '한 번', '두 번', '세 번'과 같이 띄어 씁니다. '한번'을 '두 번', '세 번'으로 바꾸어 뜻이 통하면 '한 번'으로 띄어 쓰고 그렇지 않으면 '한번'으로 붙여 씁니다. '다시 한번'의 '한번'은 붙여 씁니다.

※ 글을 끝맺음하는 문단에 어울리는 표현을 활용해 보세요.

도움말 (예) 그러므로, 따라서, 결론적으로, 정리하자면 등

포인트

마지막 문단에 앞에서 언급한 주장과 근거를 정리해주면, 독자의 머릿속에 글의 내용이 다시 한 번 새겨집니다. 효과적인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는 글을 마무리하며 정리·요약해주세요.

코멘트

문단에 감정이 실린 문장이 많습니다. 세 번째 문단과 마찬가지로 최대한 감정을 덜어내고 공정하게 적을 수 있도록 해보세요.

지금 평가 받은 글로 키위챗과 대화해 보세요.

※ QR코드를 인식하거나 클릭하면 '키위챗'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 내가 쓴 글을 읽고, 더 넓고 깊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질문해요.
- 나에 대해 관심이 많아요.
- 글에 드러난 나의 생각과 경험에 대해 물어보고 싶어요.